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권 지 성

(침례신학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문화기술지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년 정도의 기간에 쪽방 지역과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참여관찰을 하고 쪽방 거주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문화기술지 접근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주제와 공간, 시간, 생활방식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되었다. 쪽방 거주자들과 관련된 주체는 나, 우리, 그들로 파악하였다. 쪽방 거주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쪽방, 쪽방지역, 쪽방상담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이 존재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방식을 생존, 생계, 생활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생활방식을 생존계층, 생계계층, 생활계층으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책과 행정, 실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주제어: 쪽방, 쪽방 거주자, 일상생활, 문화기술지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문화기술지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년 정도의 기간에 쪽방지역과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참여관찰을 하고 쪽방 거주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문화기술지 접근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쪽방과 쪽방 거주자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32-B00293).

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빈곤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쪽방 거주자들은 흔히 노숙인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가 노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노숙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노숙인들과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노숙인들과 달리 일정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대부분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주거비를 충당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한국도시연구소, 2000b). 이를테면, 근로의욕과 자활, 자립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만을 가지고 쪽방 생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차지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불안정한 저소득 일자리이고, 주거비와 음식비만 지불해도 남는 돈이 거의 없어 더 높은 생활수준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낮은 비용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자립하여 더 높은 사회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거와 고용, 소득 이외에 쪽방 거주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질병 문제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쪽방 환경이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고 의료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워 절반 이상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음주와 약물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와 지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도시연구소, 2000b; 김선희, 2001; 장준배, 2002).

이처럼 한편으로는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어려움과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들의 주거형태 중 하나인 쪽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후 노숙인과 부랑인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쪽방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방상담소 등의 지원기관들도 생겨났다. 현재 쪽방상담소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의 수에 비해 서비스 제공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¹⁾, 제공되는 서비스들도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선희, 2001).

이론적 측면에서도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쪽방 지역과 거주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쪽방 생활실태(한국도시연구소b, 2000;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2000; 노병일·윤경아, 2004; 송민경, 2005)를 파악하거나 쪽방 거주자들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수들 간의 관계(김선희, 2001; 장준배, 2002)를 분석하거나 쪽방 거주자들의 생애사나 일상생활(한국도시연구소, 2000a; 김수현·윈승옥·김소임, 2002; 송민경, 2005)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쪽방을 비롯한 빈곤층 거주지의 변화과정(이소정, 2006)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모두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발표된 연구들이다. 이들 선행연구가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태조사 시의 경우 생활의 영역별로 범주화된 결과를 보여줄 뿐이며, 변수 간 관계 연구는 불과 몇 가지 변수들만으로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생애사나 일상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들은 쪽방 거주자

1) 대전의 경우 2008년 6월말 현재 1300여개의 쪽방에서 9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쪽방상담소의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생애 사건과 생활양태를 기술하고 있고 따라서 양적 조사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노숙인이나 빈곤층 주거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 집단의 주거형태와 쪽방 거주자들의 그것 간에는 차이가 있어서 쪽방 거주자들의 특정한 삶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이 정책 수립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쪽방 거주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개입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데는 쓸모가 많지 않다. 실천을 위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며 생활하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어떤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파악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집단의 일상생활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그 구조, 그것들의 총체라 할 수 있는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기술지 접근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문화기술지 접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개념적 맥락

1) 쪽방, 쪽방 거주자, 쪽방지역의 의미

쪽방은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 중 1990년대 이후 영구임대주택과 빈곤층 주거지의 다변화 단계에서 등장하였다(이소정, 2006). 쪽방은 약 0.5평에서 1평 정도의 작은 방으로, 주로 일세나 월세로 운영되는 무허가 숙박시설이다. 사람들이 쪽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쪽방의 모양이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방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나 방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2000).

쪽방은 건물의 물리적 특성, 거주자 특성, 운영형태 면에서 특징지을 수 있다. 먼저 물리적인 면에서 쪽방은 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고,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 시설이 방마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 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이고,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2000).²⁾ 쪽방은 대개 보증금 없이 일세 5,000-7,000원 또는 월세 13만원-30만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5-10개의 쪽방이 한 건물을 구성하고 있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은 층별 혹은 건물당 하나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창문이 없거나 크기가 작아서 환기가 어려우며 일부 쪽방은 판자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기존 단층건물을 중이층으로 개조한 경우도 있는데, 2층 방

2)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2000)의 연구에서 쪽방의 대부분은 한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좁은 방이었는데, 드물지만 2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도록 2개의 방을 튼 다소 큰 방도 있었다. 이런 곳에는 가족이나 노숙이나 쪽방 생활 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높이가 1-1.2m 정도이다(남원석, 2004).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쪽방 거주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고 60대와 50대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독가구이다. 병이 있거나 병이 있다고 느끼는 거주자가 60%에 이르고 주로 근육관절질환 및 요통, 신체장애, 위장 및 간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는 일세의 경우 평균 5,900원, 월세의 경우 평균 117,000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27-30만원을 월세로 내는데 가격은 지역과 쪽방의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소득의 경우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56.6%의 주민들이 월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한편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64.6%에 달해 단순히 이동성이 높은 일용노동자들의 임시숙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쪽방 거주자들은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방, 주거설비, 유지보수상태, 사생활보장, 안정 등의 측면에서 거주를 만족스러워 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면 전월세 방 한 칸이라도 얻어 일반거주지로 이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어 주거상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경, 2005). 쪽방 거주자들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노숙 상태로 전환될 경우도 있고 노숙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외상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노숙인들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거주자들은 상호 교류가 발생하는 등 커뮤니티 성격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경, 2005; 남기철, 2000; 이소정, 2006).

쪽방지역은 쪽방이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지역 내에 쪽방이라는 용도가 가장 우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 쪽방이라는 용도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쪽방의 분포 형태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정의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쪽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쪽방 밀집 지역도 있고, 다른 기능과 혼합되어 있으면서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산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쪽방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또 다른 기능과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는지는 쪽방으로 이용되기 이전의 용도와 쪽방지역의 형성과 변천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현재 도시의 공간구조와 주변 지역의 특성, 개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2000).

쪽방지역의 분포에 대해서는 2000년에 이루어진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자료가 가장 최근의 것이다. 쪽방이 밀집된 형태로 존재하는 곳은 서울, 대구, 대전에서 발견되었다. 서울의 경우 인접해 있는 중구 남대문로5가동과 용산구 동자동을 합하여 한 지역으로 본다면 모두 4개 지역이 있고, 대구에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개 지역이, 대전에는 규모가 큰 2개 지역이 있다. 그리고 쪽방이 다른 기능과 혼재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형태도 있다. 부산역 인근 지역과 인천의 부평동, 수원의 여러 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내에는 4개 밀집 지역이 존재하고 이곳에는 약 3,500개의 쪽방이 있으며, 대전에는 2개 밀집 지역에 1,600여개(2006년 12월말 현재 1,503개-대전쪽방상담소 내부자료), 대구에는 2개 밀집 지역에 600여개의 쪽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산된 형태로 쪽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으로는 부산

1,500개, 인천 600개, 수원 200개 정도의 쪽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2000).

2)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

선행연구들은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을 주거, 식사, 일, 소득, 가족관계, 관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다른 실태조사 연구들은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한국도시연구소(2000b)의 연구는 전국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아래 내용들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각 영역별로 조사된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거와 식사

한국도시연구소(2000b)의 연구에 의하면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거 빈곤에 처한 사람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신 생활자라 하더라도 정을 붙이고 살 공간이 필요한데, 쪽방은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한다. 쪽방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 빈곤을 경험해 왔다. 쪽방 사람들 중에는 건설 현장이나 식당 등 직장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70%에 이른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0%에 이른다. 노숙을 한 경험은 71.1%에 이르며 노숙자용 시설 등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47.1%이다.

거주 기간으로 보면, 쪽방 생활이 1년 이하인 사람이 31.7%이다. 이들은 대부분 IMF 위기 이후 노숙이나 쪽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쪽방과 노숙 생활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31.7%에 이른다. 장기간 노숙과 쪽방 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작지 않은 것이다.

쪽방 사람들이 부담하는 주거비용은,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세는 135,000 원이고 일세는 6,200원이다. 월세는 범위가 60,000원에서 210,000원까지 있고, 일세는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있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는 주거시설의 특성, 입지 특성, 이용자 특성 등과 관련이 있다. 쪽방 사람들 중에는 돈이 있을 때는 월세로, 돈이 없을 때는 일세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도시연구소(2000b)의 조사에 의하면 쪽방거주자는 수입이 매우 낮고, 신경을 써서 식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매우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쪽방거주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굶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 중 76.1%에 해당하는 86명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직접 방안에서 부탄가스나 전기밥솥 등으로 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에는 대개 반찬이 매우 부실하다. 간장이나 고추장, 양파나 고추, 김치 등 반찬 한 가지로만 식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반찬이나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응답자 중 6사례가 그러한 경우였다. 이 경우 그들의 식생활은 그런 서비스가 없었을 때보다 매우 나아졌다고 한다. 주 식사가 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라

면이 주 식사라고 대답한 경우도 25.7%에 이른다.

(2) 일과 소득

한국도시연구소(2000b)에 의하면 쪽방거주자의 다수는 일을 하고 있고,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쪽방 거주자 중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64명으로 56.6%였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13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 능력이 약간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100명 가운데 64명에 이른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다.

64명이 현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취업이 된 상태라고 보는 이는 47명에 불과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26.6%에 해당하는 17명은 취업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 매우 불안정한 일이기 때문이다. 건설 일을 나가던 사람이 일자리를 없어서 당분간 폐품을 모아서 약간의 수입을 얻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은 9.7%였다. 하지만 그들도 과거에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애초부터 취업의사가 없었던 이는 없었다.

쪽방거주자 중에는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 거의 매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며칠에 한 번씩 앵벌이를 나가 돈을 벌고 다른 날은 쉬는 사람도 있다. 앵벌이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쪽방거주자는 전형적으로 열심히 일한다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쪽방거주자가 하고 있는 일 중에는 건설일용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앵벌이, 행상, 폐품 수집의 순이었다. 그밖에도 식당일, 취로사업, 공공근로, 구두닦이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현재의 쪽방거주자들이 최초로 구하는 일자리는 공장근로자, 건설일용직, 식당일 순이다. 그리고 과거의 주 직업은 건설일용직, 식당일, 자영업, 공장근로자의 순이다.

월평균 노동일수는 20일 이상이 31.0%, 10일 이상 19일까지가 32.8%이고, 10일 미만은 16.8%였다. 직업에서 무직으로 응답한 사람이 39명인 것에 비해 일하는 날짜를 대답하지 않은 무응답의 비중은 22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비록 무직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앵벌이 나가는 것을 안내하고, 빨래를 해주는 아주머니의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시장과 인력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쪽방거주자나 같이 일하는 동료, 십장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하여 일을 구한다고 대답한 경우도 35.3%나 되었다.

한국도시연구소(2000b)에 의하면 노동이나 다른 벌이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생활보조,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 등을 모두 합한 한달 총수입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37명으로 32.7%이고, 무응답 14명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37.4%로 커진다.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감안할 때 약 40%의 쪽방거주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도 연령대가 50대와 60대로 갈수록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고령자일수록 소득이 낮고, 70세에 이르기 전에 심각한 수입 감소를 겪게 된다.

(3) 관계

한국도시연구소(2000b)의 조사에 의하면, 쪽방 거주자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45.1%로 나타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다. 가족의 태도에 대해서는 가족이 있지만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0.7%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가족의 실망감을 우려하여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쪽방거주자의 60% 이상은 결혼한 경험이 없다.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이나 사별을 했고 전체의 15.6%가 동거경험을 갖고 있다.

쪽방거주자 중에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는 경우가 약 30%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쪽방지역 내에서 쪽방거주자들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하다. 쪽방 거주자들 간에 도움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53.1%로 나타나 쪽방거주자 상호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김선희, 2001). 외부에서 흔히 인식하는 것과 같이 쪽방이 불안정하고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빈계층이 모여 사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소정, 2006). 반면에, 장준배(2002)는 사회적 연계단절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쪽방 거주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2001)는 쪽방 거주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일하지 않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이혼이나 별거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연구방법

1) 문화기술지

이 연구의 목적은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그 중에서도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쪽방 거주자들이 하나의 문화공유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쪽방지역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특유의 문화를 경험하거나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문화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문화와 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연구하고자 할 때는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문화기술지는 하나의 문화 또는 사회 집단이나 체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행동, 관습, 생활방식 등 집단의 관찰가능하고 학습된 패턴을 검토한다. 문화기술지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과정으로서 문화기술지는 장기간의 관찰을 포함하게 되는데, 전형적으로 연구자가 사람들의 매일의 삶에 잠겨서 행하는 참여관찰을 통해, 또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문화공유 집단의 행동, 언어, 상호작용의 의미를 연구한다(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1998).

연구자는 쪽방 거주자들이라는 문화적 집단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양상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그 결과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기간(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에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내부자적 관점을 가지고자 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다시 그 집단의 맥락 밖으로 나와 외부자적 관점에서 그 문화를 해석하였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주된 참여자들은 쪽방 거주자들이다. 쪽방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쪽방에서 거주한 기간과 그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다양함을 반영하기 위해 쪽방 거주자라는 특성 이외에 다른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전역 인근의 쪽방지역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접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전역 인근 쪽방지역이 전국적으로도 비교적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쪽방들이 밀집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연구가 특정 집단의 문화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공유집단이 상호작용하는 외부 환경체계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점은 늘 대전역 주변 쪽방지역에 두었지만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들을 탐구하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도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정보원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었다.

연구자가 해당 문화에 들어가 일상생활을 탐구하는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의 특성 때문에 정확한 연구참여자의 수는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가 이루어지는 1년여 동안 상당히 많은 쪽방 거주자들을 만났으며, 이들 중 주요 정보제공자들(50여명)과 접촉하여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과 접촉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공무원, 경찰, 의료인,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등)과도 만나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글쓰기

본 연구에서 주로 수집하여 활용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쪽방 거주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 둘째, 쪽방지역과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을 참여관찰한 자료, 셋째, 주요 정보제공자들의 생애사 자료, 넷째, 쪽방지역 및 연구참여자들과 관련된 공식문서와 같은 각종 기록물 등이다.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의 다양한 접근방법 중에서 전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총체적 문화기술지에 해당한다. Spradley와 같은 신문화기술지(인지인류학) 연구자들이 문화집단이 공유하는 인지

구조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총체적 문화기술지는 사회구조와 같이 관찰가능한 ‘행위의 패턴’과 그것의 바탕이 되는 ‘행위를 위한 패턴’ 모두를 발견하려고 한다(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2004). 본 연구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패턴과 그 이면에 있는 의미구조의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총체적 문화기술지는 공식화된 연구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처음에 가졌던 연구문제를 끊임없이 던지고 발전시키면서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패턴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쪽방지역을 어슬렁거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데서 시작하였고, 쪽방지역 전체에 대한 그림을 얻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쪽방상담소 직원들과도 면접을 하였으며, 점차 쪽방 거주자들에게 접근하여 탐색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겨울과 여름에는 훈련된 조사원들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면접을 진행하였다. 녹음된 면접자료와 축어록을 반복해서 듣고 읽으면서, 1년 동안 지속된 관찰을 통해, 쪽방관계자와 조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많은 생각들을 통해, 그리고 글을 쓰고 다듬어 가는 과정을 통해 점차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찾아갈 수 있었다. 결국 연구자는 이렇게 발견한 패턴들을 지금과 같은 논문의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문화기술지는 문화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의 문화를 소개하는 작업에는 매우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술논문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고분량의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술지 규정을 지키면서도 문화기술지 전통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글을 쓰는 데 몇 가지 변칙을 가하였다. 첫째, 연구결과 이외의 부분을 가능한 한 최소화했다. 둘째, 연구결과에서 참여자 인용문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문화에 대한 기술과 해석만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생애사, 기록물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문화에 대한 기술에 녹아들어가서 간접 인용되도록 제시하였다. 참고로 연구결과 중에서 쪽방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쪽방 거주자들의 행동, 가시적인 관계 양상 등은 주로 관찰과 기록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쪽방 거주자들의 과거 경험, 현재 생활, 미래 조망에 대한 인식과 서로에 대한 생각,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는 생활영역의 패턴은 주로 심층면접과 생애사 자료에 근거하였다.

4)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적 이슈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검토로서, 분석된 연구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보이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다원화로서, 다양한 정보제공자들의 관점을 통합하는 한편, 심층면접 자료와 참여관찰 기록, 공식기록물 등을 비교하여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윤리적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자료수집이 시작되기 이전에 잠재적인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강제나 비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거빈곤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연구참여로 인한 피해가 보고된 적

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슬픔과 분노를 경험하는 참여자들이 일부 나타났다. 그러한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자료수집을 중단하였으나 면접 이후에도 그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1회 면접에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였다.

4. 연구 결과

1) 세 주제: 나, 우리, 그들

노숙인들이 스스로를 노숙인이라고 부르지 않듯이(안준희, 2000), 쪽방 거주자들도 스스로를 쪽방 거주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쪽방 거주자라는 말은 그저 ‘그들’이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른바 쪽방 거주자인 ‘나’는 그냥 나일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쪽방 거주자들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다들 왜 이렇게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네.” 한 쪽방 거주자는 본 연구를 포함하여 그동안 거쳐 간 수많은 시선들에 대해 불멘소리를 하였다. 쪽방상담소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쪽방 거주자들의 특성을 이야기해 달라는 연구자의 순진한 물음에 한 실무자는 이런 식으로 답했다.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되는데...”

대전역 주변의 포괄적인 쪽방지역에는 900여명의 쪽방 거주자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주체는 대개 쪽방상담소인데, ‘실제’ 쪽방의 수와 쪽방 거주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개념 정의, 조사 접근성 등-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쪽방 거주자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수와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쪽방지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과 실무자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쪽방 거주자들의 실태를 예측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체로 합의된 분류는 단신성인, 단신장애인, 독거노인, 가족거주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즉, 우선 단독거주자와 가족거주자로 나눈 다음 단독거주자들을 연령과 장애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과 사업을 위한 몇 가지 분류방법이 더 있다.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크게 나누거나 무호적자라는 소수집단을 분류하는 것이다. 또는 자활의지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근로능력과 동기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기반으로 노력하는 이들,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반복된 실패로 자포자기한 이들,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쪽방 거주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연구자는 쪽방거주지역과 쪽방상담소, 대전역에서 쪽방 거주자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쪽방상담소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은 거의 매일

만나 대화를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하며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친구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친구 관계가 일반 사회의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일반 사회의 친구 관계나 ‘친근한’ 관계가 일정한 경계를 가진 사회집단 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후 형성되어 가는 반면에, 쪽방 거주자들의 관계는 일상적인 생활영역의 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예를 들어, 나이가 같더라도 비수급자이고 가끔 일을 나가는 A와 수급자이고 늘 쪽방상담소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B는 친구가 되기 어려운 반면에,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같은 쪽방건물에서 살고 비슷한 시간주기로 일상생활을 하는 수급자 C와 D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관계의 질은 어떠한 것인가? 이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을 굳이 무시한다면, 관계의 ‘가벼움’과 ‘다중성’, ‘공존의 그늘’ 같은 패턴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들은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쪽방 거주자들의 그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계의 가벼움이란 이들이 형성하는 관계들이 쉽게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늘 같이 다니며 친분을 과시하던 두 사람이 오늘 벌어진 사소한 일로 인연을 끊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친밀도는 높아 보였지만 정서적인 유대는 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을 쪽방 거주자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관계의 중량이라는 연속선의 다른 극단에는 수년간 가까운 곳에 함께 살면서 가족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의 가벼움이 쪽방지역에서 자주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호형호제하면서 돌봐주던 옆방 사람에게 별 생각 없이 빌려줬던 공사용 커터기가 절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것도 바로 건너편 집 자물쇠를 끊는데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배신감을 어찌해야 할까? 이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할 수는 있다. 과거에 경험했던 연속적인 관계 단절의 아픈 기억, 그 기억이 남긴 흔적으로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 밀바닥까지 가버린 최저생활의 비루함, 궁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럭저럭 지낼만할 때는 귀찮아지는 속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계의 다중성이란 쪽방 거주자들이 관계의 범위는 좁은데도 그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 자체는 일반 사회구성원들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쪽방 거주자들에게서 발견한 특성은 이들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쪽방상담소의 단골이용자인 A는 B, C, D와 친하게 지내지만, B와는 일을 같이 다니고, C와는 밥을 같이 먹고, D와는 일상생활을 공유한다. 그래서 쪽방상담소 단골이용자들의 관계망을 그려보면 서로 얽히고설킨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공존의 그늘이란 유유상종이라는 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 쪽방 거주자들은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다니는 경향을 보인다. 어쩌면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물질과 정보, 정서면에서 지지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와 비슷한 상대방의 삶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자극을 받지 못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도

전할 만한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 추운 겨울날 그늘 밑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체온을 나눔으로써 조금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는 있지만 그 그늘에서 벗어나 햇빛을 받도록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쪽방 거주자인 우리가 규정하는 ‘그들’의 분류도 있다. 쪽방 밀집지역에서 벗어나 더 나은 쪽방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그 열악한 곳에서 살아가는 쪽방 거주자들은 그들이 된다. 대전역 광장이나 쪽방상당소 휴게실에 점잖게 앉아 지내는 ‘우리’들로서는 월급날(수급일)이 되면 어김없이 술판을 벌이고 돈이 떨어질 때까지 술을 퍼마시며 행패를 부리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내가 속한 ‘우리’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³⁾ 물론 ‘우리’도 늘 서로를 잘 이해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왔고 그래서 친구처럼 어울려 왔음에도 어느 날 느닷없이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거나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술이 늘 말썽이다. 그래도 특별한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구로, 좋은 이웃으로 어울리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쪽방 거주자들이 종종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쪽방 거주자들에게 노숙인들은 ‘그들’이다. 대전역 광장과 역사에 노숙인들과 쪽방 거주자들이 한데 어울려 앉아 있고, 쪽방상당소와 홈리스지원센터가 옆 건물을 쓰고 있는 등 공존의 모양새는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가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반목과 갈등의 분위기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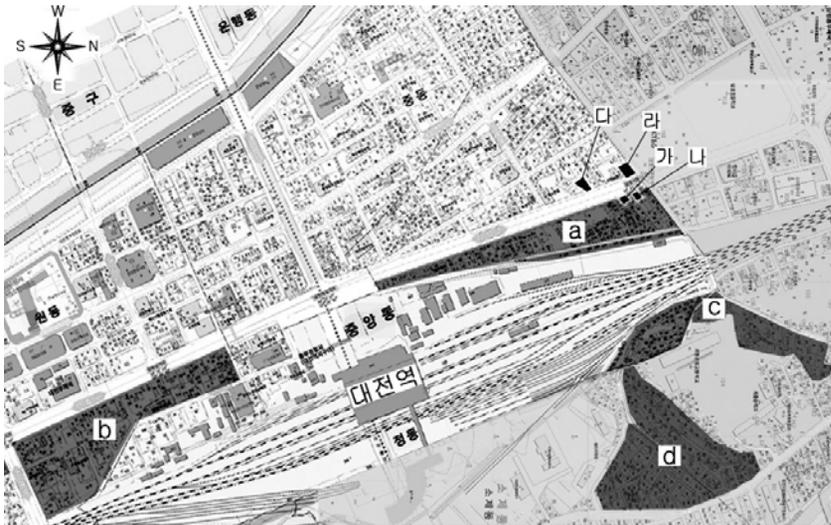
그리고 더 많은 ‘그들’이 있다. 쪽방 소유자와 관리자, 복지제공자들, 공권력, 지역사회 일반 주민들, 언론, 일반 대중 등이다. 여관이나 여인숙을 개조하거나 그대로 쪽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곳의 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일반 쪽방들은 건물 주인은 따로 있어 나가 살고 주인이 관리자를 두어 거주자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이든, 어떤 주인이나 관리자를 만나느냐가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난다면, 생활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고, 방세도 깎거나 오래 유지하거나 밀려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길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

쪽방 지역에는 도움을 받을만한 꽤 많은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들의 일이 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복지제공자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룬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때때로 경계의 대상이면서 일상에서는 잘 구슬려야 하는 이들이다. 노숙인들처럼 내쫓기지 않으려면 경찰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혹시 술을 마시거나 싸움이 나서 일이 커졌을 때도 적당히 수습할 수 있다. 멀리 있는 공무원들(시와 구)은 만날 일도 없지만 우리에겐 별로 신경도 안 쓴다. 오직 재개발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관심을 둘 뿐이다.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동 주민자치센터)은 우리의 밥줄을 쥐고 있는 만큼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지역주민과 언론, 일반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골칫덩어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쪽방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을 뿐이다.

3) 이러한 경향은 노숙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진미·서정화, 2006).

2) 세 개의 공간: 쪽방지역, 쪽방, 쪽방상담소

대전역을 둘러싼 쪽방밀집지역(a~d)과 대로 건너편에 흩어져 있는 쪽방들을 묶어서 쪽방지역으로 볼 수 있다. 대로 건너편에는 쪽방 거주자와 노숙인들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기관들(가~라)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1> 쪽방지역

쪽방밀집지역은 그림에서처럼 (a)~(d)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a)지역은 큰 길을 따라 상가 및 복지시설이 늘어서 있으며 쪽방은 그 뒤편에 배치되어 있다. 이곳은 과거 성매매가 성행했던 곳으로 여인숙이 많다. 지금도 성매매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많이 쇠퇴하였으며 그 기능이 변해 쪽방으로 활용되는 곳이 많다. 건물의 주 재료는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이뤄져있으며 대전역에 가까울수록 2층이나 3층의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와는 다르게 가장자리에는 판자 형태의 단층구조인 쪽방이 다듬어지지 않은 협소한 길을 따라 밀집되어 있다. (b)지역은 관공서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제법 큰 시장이 형성된 곳이다. 단층의 쪽방은 물론,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듯한 쪽방건물은 주변에 우뚝 서 있는 최신식 건물들과 쉽게 비교되어 빈부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장 내에는 여관이나 여인숙 간판이 걸린 건물들이 쉽게 관찰되며, 시장을 지나면 한 명이 지나가기에도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가정집 형태의 쪽방이 밀집되어 있다. 일명 ‘굴다리’로 통하는 짧은 지하터널을 지나면 짧은 오르막길이 보이는데 이 길을 따라 오르면 각각 (c)와 (d)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이곳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며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쪽방은 대부분 가정집의 형태를 띠며 많게는 9가구 이상이 사는 다세대 주택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곳은 앞에서 설명한 지역들에 비해 쪽방의 규모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며 상가나 큰 도로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외부소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이 지역을 넘어서면 좁은 범위의 쪽방지역과 산발적인 쪽방들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대전 쪽방상담소에서는 2008년 6월말 현재 대전에 1300여개의 쪽방과 900여명의 쪽방 거주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쪽방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또 하나의 공간은 '대전역'이다. 그곳은 일종의 생활터전이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어울려 잡담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일거리를 함께 할 수도 있다. 혼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그곳은 관계가 형성되는 장이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와 사건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도 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춥다면 현대식으로 지어진 역사에 들어가 맘을 식히거나 몸을 덥힐 수도 있다. 대형 벽걸이 TV도 구비되어 있다. 정해진 시간마다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니 멀리 안가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쪽방이 숨은 안식처라면, 대전역은 열린 휴게실이다.

쪽방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 쪽방 거주자는 “맨날 보는 사람이 거기서 거기고, 변하는 것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 지겨워서” 떠나고 싶다고 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기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다. 그럴만한 이유도 많다.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여기보다 더 나은 곳에 방을 구하기가 어렵다. 둘째,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셋째, 운이 좋다면 좋은 집주인이나 다른 방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안하게 지낼 수도 있다. 넷째, 이 지역에는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다. 쪽방상담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자원들은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교통이 편리하다.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통해 대전역에서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이러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진다 해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이 없는 이들도 많다.

쪽방의 의미는 무엇일까? 노숙과 쪽방 생활의 차이는 무엇일까? 쪽방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쪽방에 대한 개념정의는 앞서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이런 질문들에 답한다. 어떤 이들에게 쪽방은 ‘최후의 보루’다. 길거리로 내몰리기 싫다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딘가 몸과 마음을 얹어놓고 버틸 곳이 필요하다면, 쪽방이야말로 그런 곳이다. 어떤 이들에게 쪽방은 ‘형편에 맞는 거처’다. 일자리는 변변치 않고, 벌이도 시원치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겨우 하루하루 뼈뺏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쪽방은 괜찮은 잠자리가 된다.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잠자고 쉴 때만 몸을 누이는 곳으로는 견딜만한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쪽방은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만만치 않은 주거비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것이 없지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면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더 나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 쪽방은 ‘무인도’같은 곳이다. 아무도 찾지 않고, 물이나 다른 섬으로 갈 수 없는 고립된 상태, 그래서 구원의 손길이 올 때까지 무엇이든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곳이다. 질병이나 장애가 심한 이들 중에서는 하루 종일 쪽방에서 지내는 이들도 있다.

대전역 주변은 쪽방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노숙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근에 쪽방 거주자와 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들도 밀집하게 위치해 있다. 쪽방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로는 쪽방상담소, 홈리스지원센터, 희망진료소, 새나루공동체(<그림 1>의 (가)~(라)순) 등이 있다. 쪽방상담소는 쪽방 거주자들을 주된 클라이언트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다. 거주자의 유형별 사례관리, 의료복지, 주거복지, 지역복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2층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 쪽방지역주민들이 세탁, 샤워, 이미용, 한방진료 및 문화생활(TV 및 영화상영 등)을 할 수 있다. 홈리스지원센터는 쪽방지역민을 ‘잠정적 노숙인’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노숙인을 위한 쉼터 및 자활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쪽방상담소와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쪽방지역민이 다시 노숙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정서, 물품, 행정, 주거 등)를 지원하며 과거 노숙생활을 했던 쪽방민들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희망진료소는 쪽방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좀 더 정밀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나 진료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다양한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래 및 입원진료를 실시한다. 새나루 공동체는 새나루 나눔의 집이라는 교회에서 운영된다. 유일하게 쪽방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무료급식(저녁)이 있다. 무료급식준비 및 배식활동은 대부분 교인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쪽방지역주민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쪽방상담소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고자 한다.

2008년 6월말 현재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에는 4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인력은 소장 1명, 팀장 2명, 일선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과 팀장은 각각 6년과 2년, 1년 정도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고, 일선 1명은 1년이 채 안됐다. 연구가 진행된 1년 동안 사회복지사 4명이 이직하고 새로 채용되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꽤 명백하게 와 닿을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함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곳은 더 심하다. 급여를 포함한 낮은 수준의 근무조건과 감당할 수 없는 사례부담률(쪽방 거주자 900명/실무자 3명)은 이직 여부를 떠나서 매우 치명적인 조건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높은 이직률이 사회복지사들과 상담소 이용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잦은 교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무자들의 업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품지원(각종 현물을 배분하는 일)인데, 대체로 지원 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등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 쪽방 거주자들의 최근 형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신입직원으로서의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공동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은 너무 오래 계속되어 오히려 무덤덤해진 것 같다. 인력의 부족은 서비스의 깊이를 낮추고,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연결되기 쉽다. 전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후자는 상담소와 쪽방 거주자들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일상적으로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쪽방 거주자는 5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중에서 10명 정도는 거의 매일 상담소 휴게실에 와서 하루 종일 또는 꽤 오랜 시간을 보낸다. 나머지 인원들은 매일 오기는 하지만 잠깐 들러 가는 경우,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경우, 일주일에 두세 번 간간히 들러 정보를 수

집하고 가는 경우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원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간과 이용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용자의 수는 매우 유동적이다. 또한 주요 이용자들이 큰 주기로 ‘물갈이’되는 현상도 포착된다. 유난히 설레발을 치는 ‘신규’ 이용자가 나타나면 이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기존 이용자가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이 신규 이용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둘씩 데려오면서 그 세력이 커지고, 점차 세력이 이동되면서 기존 이용자들이 거의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되는 식이다. 또는 기존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일부 구성원들이 발길을 끊게 되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도 서서히 떠나게 된다.

쪽방상담소와 쪽방 거주자들의 관계는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다.⁴⁾ 상담소 실무자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이 관계는 더 복잡해 보인다. 명목적으로, 쪽방상담소와 각종 사업의 목적은 쪽방 거주자들의 ‘자활’이다. 자활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더 복잡한 일이지만, 그것이 쪽방 거주자들이 쪽방보다 나은 주거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쪽방상담소의 사업들은 그다지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 매입임대주택구입으로 인한 주거이동 사례를 제외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직접 서비스를 통해 쪽방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실무자들의 개입이 쪽방 거주자들의 복지의존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 실무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비수급상태인 수급권자를 발굴하여 수급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격을 얻도록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수급자가 되면서 일을 그만 두는 경우와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몰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쪽방 실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쪽방 거주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주자들이 그것을 다 알아주는 것은 아니다. 실무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주자들마저도 특정 사건을 둘러싼 오해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실무자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욕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일부 거주자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어떤 실무자는 ‘그 분들이 없다면 상담소가 안돌아갈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일부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일정 기간에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5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는 쪽방상담소를 멀찍이 바라만 보고 있거나 없는 듯 살아가거나 아예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간다. 존재를 아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서, 어떤 이는 그곳이 싫어서, 어떤 이는 질병이나 장애 등 신체적인 제약으로, 어떤 이는 굳이 가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이 결국 상담소에 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안가면 손해 보는 느낌 때문이거나 아는 사람이 같이 거주거나 데려다 주거나 꼭 필요한 것을 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되었거나 호기심 때문이다.

4) 서울의 대표적인 빈곤지역인 난곡을 탐구한 조문영(2001)은 가난과 복지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3) 세 가지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런 데서 살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쪽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던지게 되는 질문일 것이다. 쪽방에서 살게 된 이유는 쪽방 거주자들의 수만큼 다양하고,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쪽방 거주자들의 과거 경험이나 생애사에 대해서는 김수현·원승욱·김소임(2002)과 한국도시연구소(2000a; 2000b)가 개별 사례를 소개하거나 거주자 유형(독거노인, 단신장애인, 단신청장년, 가족주거)별로 요약해서 기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합하여 쪽방 거주자들의 과거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이들의 과거가 갖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두어 제시할 것이다.

쪽방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체로 오랜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인생의 종착역으로 쪽방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중 일부는 어렸을 때부터 내내 가족과 떨어져 살아왔고, 변변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자연스럽게 비주류 사회의 힘든 일자리를 전전하며 떠돌다가 결국 모아놓은 돈도 없어 가장 값싼 주거지인 쪽방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다른 일부는 청장년기까지 평균 이상의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레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모든 것을 잃고(또는 버리고) 노숙과 쪽방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청장년 세대가 쪽방에서 살게 된 합리적인 이유로는 크게 장애와 질병,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장애나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쪽방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와 부실이다. 단신장애인과 단신청장년의 대부분은 원가족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단절된 사람들도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 단절된 사람들도 있다.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질병이나 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있고,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이들에게는 도움을 줄만한 가족도 없고, 있더라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연락할만한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다. 질병과 장애 외에도 가족과 단절되면서 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어떤 이는 어느 날 살인을 하게 되면서 가족을 떠나 살게 되었고, 급속하게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쪽방으로 숨어 은둔생활을 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고, 반면에 각종 공사현장에서 쓸 만한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쪽방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 쪽방상담소 등에서 흔히 비수급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쪽방을 일종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 대체로 공사현장은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몇 달씩 현장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야 한다면 굳이 비싼 주거비용을 대야 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일거리가 없는 일정 기간에만 짐을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쪽방이 바로 안성맞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쪽방 거주자들이 모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예외적인 한 집단이 존재한다. 가족거주자들이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언뜻 살펴볼 때, 이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가족의 독특함 때문에 그 수만큼 다양한 사연과 이유들이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홀로 남은 부양자가 가족을 부양할만한 소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쪽 부모가 다 있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남성 가구주가 있는데도 가난한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장애, 저숙련기술과 그로 인한 고용불안정 때문이다.

쪽방 거주자들이 경험한 과거의 의미는 ‘가난의 흔적’, ‘떠밀려남’, ‘희망의 지푸라기’ 등으로 이해된다.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가난의 역사가 지금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 가난과 그와 관련된 각종 부정적인 외상 사건들이 남긴 상처의 흔적들이 몸과 마음 곳곳에 머물러 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지금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떠밀려남’은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쪽방 거주자들은 그동안의 생애에 걸쳐 주류 사회로부터 조금씩 배제되면서 쪽방지역으로 밀려와 있다. 과거가 모두 부정적인 기억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쪽방생활을 하게 되었고, 쪽방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들에게는 ‘정상적이었던’ 과거의 생활에 대한 기억이 미래의 삶에 희망을 갖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건네진 지푸라기처럼 가늘고 약하지만, 이러한 기억과 희망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은 계절과 하루 단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달 또는 일주일 단위의 일상도 파악하고자 하였지만 종교활동이나 식사 건 외에 이들에게 그런 단위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계절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용직 노동을 주로 하는 비수급자 단신청장년들이 특히 계절에 민감하다. 봄과 가을에는 일자리가 많고 날씨가 좋아 일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일자리가 없으니 따로 갈 곳을 찾아야 한다. 일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절의 변화가 귀찮게 여겨진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곳을 찾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곳을 찾느라 머물러 있는 공간이 달라질 뿐 그곳에서 하는 일들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쪽방 거주자들의 하루 일과는 물론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눈에 띄는 특성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을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인력시장 등에 가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하루 일과를 일찍 시작한다. 일찍 일어나는 만큼 일찍 자는 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매일의 일과가 되든 여가가 되든 가끔씩 찾아오는 휴가가 되든, 일을 할 수 없든 하지 않든, 수백명의 쪽방 거주자들에게는 일하지 않는 시간을 때울 곳과 놀 거리가 필요하다. 어떤 이들은 쪽방 상담소의 휴게실에서 같은 쪽방 거주자나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TV를 보거나 장기, 바둑을 두거나 상담소의 일을 돕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대전역 광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곳에는 편히 앉을 만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숙인들과 쪽방 거주자들이 함께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은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 극단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경우 일반인들도 구분할 수 있지만, 차림새만으로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쪽방에 머물러 있다. 식사나 정해진 일

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방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빈둥거린다. 대부분의 쪽방은 냉방과 난방 어느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경우에는 추위와 더위를 피할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독거노인이나 중년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웃끼리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성노인들의 대부분은 경로당을 즐겨 찾는다. 실무자들이 여성노인들을 찾아야 할 때는 경로당으로 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이들은 ‘돌아다닌다.’ 앞서 살펴본 이들이 비교적 갈 곳을 정하고 다니는 경우라면, 이들은 ‘정처없이’ 다니는 경우다. 시내를 여기저기 배회하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면 앉아서 멍하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거나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보는 사람과 행위자의 관점에 따라, 산책이 될 수도, 부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 이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는가? 쪽방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미래보다 하루하루의 삶이 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없고, 질병이나 장애, 노화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변화를 기대하지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물론 꽤 많은 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매일 어쩔 수 없이 이른 아침에 눈이 떠지면 스스로 흘러가는 시간에 맞춰 할 일을 찾아가고 그 일들에서 의미를 찾기도 한다. 단신청장년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싸움이 거의 없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적다는 점이다. 신체적으로 힘든 이유도 있겠지만 노인들이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정도 인생에 ‘달관한’ 태도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거노인들은 단신청장년들(수급과 비수급, 장애인과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의 가시적인 미래다. 다시 말하자면, 단신청장년들은 쪽방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직시하게 된다. 어쩌면 이런 이유로 이들이 독거노인들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비수급 쪽방 거주자들은 쪽방 생활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다는 불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약착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다. 자녀가 있는 가족거주자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쪽방지역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어떠하든 쪽방(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꽤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쪽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고 숙련기술을 가진 비수급자에게, 그것은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다만 안하고 있을 뿐이다. 건축현장에서 각종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공사장에서 일할 경우, 숙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돈을 고스란히 모아둘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거나 여기저기 다른 용도로 쓰다보면 어느새 남는 돈이 없게 된다. 이러한 자신의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쪽방상담소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통장을 맡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도 한다. 이들이 쪽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것이다. 행정당국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세우며 쪽방 거주자들을 이곳으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임대기간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쪽방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장애와 질병을 가진 수급자들에게는 쪽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며, 그래서 업무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해도 자녀를 둔 쪽방 거주자들의 각오는 남다른 것 같다. 결국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도전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다.

4) 세 가지 생활방식: 생존, 생계, 생활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방식을 기술하기 전에, 쪽방지역이 ‘평균 이하의 사회’로 정의될 수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득’의 측면에서, 쪽방 거주자들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점이다. 즉, 모든 쪽방 거주자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회에도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한다. 연구자는 이 계층구조를 다소 단순하게 생존계층, 생계계층, 생활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의 생활방식을 생존, 생계, 생활이라는 일상화된 표현으로 개념화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생존⁵⁾

생존의 사전적 정의는 ‘살아 있음, 살아남음’이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생활방식이 되는 계층이 있다. 가장 극단적인 하위계층은 쪽방에 홀로 사는 늙고 병든 노인들일 것이다. 이들은 거동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쪽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병원과 약국에 가거나 무료급식을 받으러 가거나 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일 외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시간에 다가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시설보호를 하면 좋겠지만, 원하지도 않고 갈 곳도 마땅치 않다. 자신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은 고립된 곳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쪽방을 원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최우선순위 대상자라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쪽방상담소에 쪽방 거주노인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서비스의 원칙상 원래 그래야 하는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다.

생존계층의 또 다른 전형은 ‘실질적인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자들이다. 어떤 이들은 아직 호적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제도의 자격기준(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때문에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어떤 이유이든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삶을 유지해가야 한다. 이들은 잘 보이지 않는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일을 하기는 어렵다. 괜히 막일을 나갔다가 일주일간 아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벼운 날품을 팔거나 행사, 폐품수집 등을 통해 푼돈을 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1인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별도의 활동이 필요하다. 당장 급한 것은 당연히 음식인데, 다행히도 살 길은 있다. 바로 ‘무료급식’이다. 쪽방지역과 주

5) 생존(生存) 「명」 살아 있음. 또는 살아남음(국립국어원, 1999).

변에는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무료급식(100원을 받는 곳도 있다)을 하는 곳들이 있고, 그 일정만 알고 찾아다니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홈리스지원센터에서는 아예 무료급식 일정표를 나눠주기도 한다. 옷의 경우에는 각 계절을 두세 벌로 버터내는 것이 보통이다. 옷을 새로 사는 경우는 드물지만 꼭 사야한다면 대전역 옆의 시장에서 중고로 구입하거나 작정하고 새 옷을 사기도 한다. 겨울에는 쪽방상당소 등에서 배분하는 점퍼를 받기도 하는데,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입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최저생계비가 ‘실제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쪽방에 거주하는 ‘생존계층’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물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해서 쪽방 거주자들이 굶어죽거나 얼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있으며(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일반 사회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춥거나 덥게 생활하고 있다.

(2) 생계⁶⁾

생계계층은 생존을 넘어서 ‘최저생계비’ 기준선 위아래의 소득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간다. 생계방식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따라 다르다. 2008년 기준으로 수급자들은 32만원의 생계급여를 갖고 살림을 살아야 한다. 급여를 받게 되면 일단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보통 10만원 정도)인 방세를 내고, 밀린 외상값을 갚고, 생활필수품(쌀이나 반찬, 일상생활용품 등)들을 구입한 다음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간다. 그 ‘남은 돈’은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다. 5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더 나은 주거공간으로 이동할 셈이라면, 무료급식을 받아 식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료급식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대안을 흔쾌히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도 구입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얻어 쓰게 되면 절약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각종 기호식품(커피, 술, 담배 등)을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도 절약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절약한 돈을 매달 모아가면 몇 년 뒤에 더 나은 주거공간으로 조금씩 이동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쪽방상당소 직원에게 통장을 맡기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로 한다.

일반인들은 이들에게 ‘악착같이’ 살아가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 이겠는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중 하나는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는 행태일 것이다. 급여 입금일인 20일(이날을 “월급날”이라고 부른다)이 되면 쪽방지역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주일간 ‘소박한 쾌락’ 주간이 진행된다. 여기저기서 술자리가 벌어지고 서로 술을 권한다. 이중에는 물론 소수의 알코올중독자들도 있고 알코올의존 상태인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 주간뿐만 아니라 늘 술을 마신다. “밥 사먹을 돈은 없어도 술은 어디에서나 마실 수 있다.”

6) 생계(生計) 「명」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국립국어원, 1999).

(3) 생활⁷⁾

쪽방 거주자의 대부분은 생계계층에 속하며, 나머지 일부분을 앞에서 살펴본 생존계층과 여기에서 살펴볼 생활계층이 차지한다. 여기에서 생활계층이란 생존과 생계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주거공간인 쪽방의 물리적 환경은 다른 계층과 다를 바가 없지만 생활방식은 꽤 다르다.

우선 소득 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다.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일당 10만원 이상으로 한달 내내 일하기도 하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갖기도 한다. 물론 여름과 겨울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년 평균 소득을 따지면 소득수준은 낮아진다.

또한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질병이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직업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일이 없는 날에는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형식으로 다른 쪽방 거주자들을 돕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생활계층의 생활방식은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주체와 공간, 시간, 생활방식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되었다. 쪽방 거주자들과 관련된 주체는 나, 우리, 그들로 파악하였다. 쪽방 거주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쪽방, 쪽방지역, 쪽방상당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이 존재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방식을 생존, 생계, 생활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생활방식을 생존계층, 생계계층, 생활계층으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책과 행정, 실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면, 주거빈곤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여 쪽방 거주자 등 주거빈곤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재개발사업과 맞물려 불량주택을 제거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쉬운 방안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적지 않은 월세를 지급하면서도 쪽방 거주자들이 쪽방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다. 인력시장에 대한 접근성, 싼 음식 값과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다양한 가치 등이 그것이다. 차라리 쪽방지역 내에 단신성인들과 가족거주자들을 위한 주택을 새로 지어 저가로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쪽방 분야의 실무자들은 최근 쪽방 거주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쪽방과 비슷한 크기의 주거공간들로 이루어진 임대형 숙박공간이다. 기존의 쪽방건물을 허물고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주거환경을

7) 생활(生活) 「명」 「1」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 「2」 생계나 살림을 꾸려나감. 「3」 조직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 「4」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감. 또는 그런 상태(국립국어원, 1999).

획기적으로 바꾸고 이를 기존의 쪽방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 값싼 숙박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의 쪽방들이 대부분 대도시의 교통 중심지인 역사(驛舍) 주위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쪽방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쪽방지역과 거주자들에 대한 낙인도 없애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행정 차원에서는 쪽방상담소에 대한 사업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쪽방상담소에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 인건비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이는 쪽방상담소의 이직률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고, 높은 이직률은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쪽방상담소의 인건비를 최소한 사회복지관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천가 1인당 사례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쪽방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업비를 대폭 지원해야 할 것이다.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실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쪽방 거주자들을 비롯한 주거빈민들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실천현장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쪽방 거주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집단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쪽방 거주자들을 크게 분류한 다음에는 사례관리를 통해 각 쪽방 거주자들에 대해 지속적,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결과 중 계층에 따른 생활방식들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존계층에 속하는 독거노인과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자들의 경우 사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질병과 장애를 가진 독거노인들은 자주 쪽방을 방문하여 생활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가까이 사는 다른 쪽방 거주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에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쪽방상담소와 서비스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들을 연결하여 제공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근로능력이 적은 비수급자들은 개별적인 능력과 강점에 따라 적절한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쪽방 독거노인들의 생애계획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생계계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쪽방상담소보다는 다른 사회복지전달체계들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쪽방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의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자들이 생계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생활계층에 속하는 근로능력을 가진 비수급자들의 경우, 쪽방상담소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다른 쪽방 거주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조직화하여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자활사업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여름과 겨울 같은 건설 비수기에는 이들을 주거빈곤 지역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서로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족거주자들의 경우 단신거주자들보다 더 많은 주거복지 수급권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쪽방에 거주하는 부모세대는 자녀세대가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쪽방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이 더 안정된 상황에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차원에서 쪽방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지역사회개발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돕는 방법이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사회계획 모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지역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과 협상하여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선희. 2001. “쪽방거주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수현·원승욱·김소임. 2002. 『쪽방사람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진미·서정화. 2006. “거리노숙인의 유대 형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삭막한 세계의 동맹자 만들기”. 『한국사회복지학』 58, 3, 51-79.
- 남기철. 2000. “노숙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외상이 보호시설 퇴소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남원석. 2004. “매입방식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따른 저소득 주거복지 제고방안”. 『도시와 빈곤』 68, 128-163.
- 노병일·윤경아. 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다운샘.
-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2000.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
- 송민경. 2005. “쪽방노인 생활실태에 따른 정책 제안 연구: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안준희. 2000. “노숙자’의 생활양식에 관한 인지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소정. 2006. “판자촌에서 쪽방까지: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167-208.
- 장준배. 2002. “쪽방거주자들의 사회적 연계단절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조문영. 2001. “가난의 문화’ 만들기: 빈민지역에서 ‘가난’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한국도시연구소, 2000a. 『쪽방연구』.

한국도시연구소, 2000b. 『쪽방지역 실태 및 정책개발』.

An Ethnography on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in Jjok-bang

Kwon, Ji-sung

(Kore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in Jjok-bang. To achieve this purpose, I conducted an ethnographic approach. I contacted the residents in Jjok-bang, collected data from an in-depth interview, participative observation, documents, and analysed data by an ethnographic approach. In research findings, I presented four dimensions of the daily life: subject, place, time, way of life. Subjects were categorized as 'I', 'We', and 'They'. I investigated the residents' places that were categorized as three places such as Jjok-bang, a Jjok-bang region, and a Jjok-bang service center. I identified the residents' experiences in time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addition, I gained a deep understanding of their way of life which was divided to survival, living, and life. Based on the results, I offer suggestions for policy, administration,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es.

Key words: Jjok-bang, the residents in Jjok-bang, daily life, ethnography

[논문 접수일 : 2008년 9월 5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0월 19일]